

우수 녹색건축물 특성 분석 - 녹색건축대전 수상작 중심으로 -

Characteristics of Excellent Green Buildings - In Case of Korea Green Building Award-winning work -

○김 유 진*
Kim, Yu-Jin

키워드 : 녹색건축대전, 녹색건축, 수상작, 녹색건축인증

Keywords : Korea Green Building Award, Green Building, Award-winning work, G-SEED

국제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저감,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활동은 수년 전부터 현재까지 중요한 이슈이다. 국내 건물부문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 및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2조에 의하여 녹색건축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유관제도 아래 지속가능건물, 도시가 조성되었으며, 국민 생활속에서 녹색건축에 대한 성과를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이라는 건축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수한 녹색건축물로 수상된 작품과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은 2012년 대통령 직속 위원회(건축기본법 제13조)로 출범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녹색건축정책 추진과제 일환으로 녹색건축 성과 공유 및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사용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실현한 녹색건축 모범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9년부터는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건물부문(준공, 운영) 뿐 아니라 녹색건축 관련 정책, 기술, 혁신 아이디어에 대한 대국민 아이디어 부문을 신설하여 공모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건물 준공부문 수상작 특성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건물부문의 심사는 친환경 및 생태적 디자인의 완성도 높은 디자인, 온실가스 및 환경부하 저감과

실내외 쾌적 환경을 실현한 기술, 창의성을 반영한 혁신성, 경제적 실효성 및 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는 시장성 4개 부분에 대하여 종합 1차 서면, 2차 현장실사를 통한 종합 평가로 수상작이 결정된다.

표1.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수상작

더 넥센 유니버시티	세종충남대병원	피앤피스테이션
2019	2022	2023
		
국토부장관상	국토부장관상	국토부장관상
에너지효율등급1+	에너지효율등급1+	에너지효율등급1+
녹색건축인증 2등급	녹색건축인증 2등급	녹색건축인증 2등급
재료(유리)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기능적 부분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를 고려하는 외관디자인이 인상적. 재실자를 위한 자연친화적 요소 등을 도입한 통합설계가 돋보임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패시브, 액티브 디자인 적용으로 매년 연간 에너지 비용 절감하는 친환경 병원 구현	튼튼한 외피 디자인과 일사분석을 통한 차양 계획, 냉방부하 절감 효과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설계가 특징

위의 표1 내용을 종합해보면, 녹색건축대전 공모를 위하여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이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수상작 모두 우수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은 건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설계 당시부터 패시브와 액티브 요소를 고려하고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기술을 도입한 통합설계를 통해 녹색건축을 실현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만 아쉬운 부분은 중대형급 설계사 위주의 참여와 업무용 건축물 위주의 수상이다. 이제는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높아진 만큼 다양한 용도, 소형규모의 녹색건축물의 참여와 수상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임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yujinkim@kict.re.kr)

이 연구는 2024년도 녹색건축인증 지원을 위한 기술연구 사업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번호:20240021-001